‘뱃살빼기’ 건강교실

함평군 보건소

함평군 보건소는 지난 22일 ‘뱃살줄이기 건강교실’을 개설했다.

이번 건강교실은 장년층 40명을 대상으로 6월말까지 20주동안 진행된다.

건강교실은 매주 월요일마다 보건소 건강증진 전문요원들이 참여자의 허리둘레와 체지방·골 밀도·유연성 등을 측정한 뒤 적절한 운동처방 및 요령을 지도해 준다.

보건소 서영화담당은 “지난해에는 이 프로그램에 37명이 참여, 18.9%가 뱃살 줄이기에 성공했다”면서 “프로그램이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이들을 건강 도우미로 위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무보수 명예직 불구 입지자 몰려

주가오르는 市·郡 문화원장

곡성 등 추대 못하고 선거로 뽑아

무보수 명예직인 시·군 문화원장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지난 1960년대 부터 사단법인 형식으로 설립된 시·군 문화원은 그동안 추대 형식으로 원장을 뽑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최근 2~3년전 부터 문화원장 입지자들이 늘어나면서 일부지역에서 경선을 거쳐 선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곡성군 문화원장이 투표로 뽑힌데 이어 오는 3월 중순께 임기가 만료되는 ‘장흥군 문화원장’ 후임을 놓고 4~5여명의 회원들이 출마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장흥지역에서도 선거에 의해 문화원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일부 지역에서 문화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축제와 문화관련 행사가 늘면서 문화원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경우 문화원장이 추진위원장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프로그램 구성이나 주제 설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문화원장은 정기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나 유급제 사무원 2명을 둘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고 연간 3억원 상당의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받는다.

문화원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직함도 늘고 있다.

장흥군의 경우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협의의장을 비롯해 지역혁신협의회 회장, 군 축제발전위원회 위원장, 군민의 상 심의위원, 법원가사조정위원 등 문화원장이 동시에 맡아야 하는 직함만도 10여개에 달한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동계훈련 요트들이 수놓은 여수 앞바다

요트 선수들이 푸른 파도를 가르며 연습에 여념이 없다. 여수시 소호요트경기장에는 이달 초부터 여수고 요트팀과 일반 실업팀 등이 동계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도대파 산지 폐기 진도대파의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23일부터 군내면 녹진리 등에서 산지자율폐기가 시작됐다. 진도군과 농민회는 전체 재배면적의 10%인 184ha를 폐기할 방침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나주에 인삼농협 개소

광주·전남 400여 농가 이용 불편 해소

광주·전남 인삼농협이 출범하게 돼 그동안 전북인삼농협을 이용해 왔던 지역 인삼재배농가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광주·전남 인삼농협은 400여 농가를 회원으로 26일 나주시 송월동에 개소한다. 지역 인삼농협 출범으로 재배농가들이 보다 신속한 기술교육은 물론 공동 출하 등이 가능케 됐다.

지난 97년 73ha에 불과했던 광주·전남지역 인삼재배 면적은 최근 880ha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전남지역 인삼 재배면적이 늘어난 것은 적합한 토양과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다 경작 기술도 해가 갈수록 향상돼 양질의 인삼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인삼공사와 계약재배로 판로 걱정이 없는데다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 등 벼 대체작물로 새롭게 부상하면서 올해에만 270ha의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성배 조합장은 “광주·전남 인삼농협 발족으로 유통과 경작기술교육 등 재배농가에 다양한 혜택 부여가 가능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물류 창고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기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지역 인삼재배농가들의 시간절약과 경비절감은 물론 나주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영광지방 선거 관련 불법도청 공방 확산

영광지역에 불법도청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영광군 백수읍 강모씨 등 12명은 지난해 12월 22일 영광군 민주당 지역협의회 전 사무국장인 이모씨를 불법 도청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이씨가 10여년 전부터 결성된 자신들의 사적 모임 장소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대화내용을 불법 녹취한 후 이를 근거로 군수 선거 직후인 지난해 6월 ‘사조직을 이용해 강종만 현 군수의 당선을 도왔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때문에 가택 압수 수색과 계좌추적 등의 조사를 받았으며 특히 이씨가 녹취테이프를 증거물로 제출하면서 ‘모임 중 한 사람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라고 밝혀 모임 구성원간 심각한 불신과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씨는 “불법행위를 통해 녹취테이프를 제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남악신도시 교통불편 던다

道·운수업관계자 버스노선·요금체계 개선안 마련키로

무안군 삼향면 남악신도시의 교통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최근 목포시와 무안군 버스·택시 등 운수업 관계자들과 협의회를 열고 오는 3월 목포시의 전면적인 노선개편이 될 때까지 노선버스 1-1번과 1-3번을 출·퇴근 시간에 남악리젠시빌을 경유키로 합의했다. 또 택시 운행은 무안국제공항 개항과 무안기업도시 건설 등을 고려해 목포시와 무안군의 사업구역 통합을 시도하는 한편 요금체계 조정 및 운행요령 등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전남도는 이번 합의에 따라 다음달 초 구체적인 절충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남악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교통문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남악신도시는 목포시와 무안군의 2개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등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목포시에서 시내버스가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지만 아파트까지 운행하지 않고 있는데다 무안군에서 택시 사업구역을 내세워 목포시의 택시 진입을 차단하거나 택시요금 과다 징수 등 주민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김영후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현재 남악신도시는 목포시와 무안군의 2개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남악신도시와 목포 시내권 등을 원활하게 연계할 교통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새얼굴

“인권존중·범죄예방 최선 다할 터”

정 인 균 목포경찰서장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겠습니다”

정인균(59) 신임 목포경찰서장은 22일 “범죄 예방과 검거 등에서 탁월한 전문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 청계 출신인 정 서장은 광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73년 순경으로 출발해 영암·고흥·광주남부·순천경찰서장과 전남청 보안과장, 수사과장(2회)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손명주씨와 1녀가 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주민들에 믿음주는 경찰상 확립”

김 학 영 고흥경찰서장

“인권을 존중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상 확립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신임 김학영(56) 고흥경찰서장은 22일 “주민에게 편안함과 믿음을 심어주는 치안활동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흥군 금산면 출신인 김서장은 광주고와 전남대를 거쳐 원광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지난 92년 경찰에 입문, 경찰청 및 서울청 정보과장과 화순·광주남부서장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향자씨와 1남 3녀. /고흥=대성수기자 dss@